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6.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美 백인우월단체, 극좌파 사칭하여 폭력시위 선동

- 6.1 CNN은 트위터에 “오늘 밤 도시를 끝장내라, 우리 것을 차지할 것” 등의 글을 게시해 폭력을 선동한 ‘안티파*’ 계정이 네오나치 단체인 ‘아이덴티티 유로파’와 연계된 것을 확인했으며, 백인우월 주의자들이 좌파행세를 하며 갈등을 부추긴 사례라고 보도

* 안티-파시스트의 줄임말로 파시즘·나치즘에 반대하는 단체 및 활동가

○ 미국, 흑인사망 항의시위를 ‘테러’로 규정

- 6.2 「트럼프」美 대통령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「조지 플로이드」 사망 규탄 시위를 ‘국내테러’로 규정하고 △워싱턴에 병력 배치, △모든 州에 방위군 배치, △야간통행금지 발령, △수정헌법 2조 포함 미국인 권리 수호 등을 위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

아·태평양

○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·실험 공간 마련

- 5.29 과기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기술원내 외부 전파간섭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실험장 ‘전파 플레이 그라운드’를 구축했다고 발표, 전문가들은 “최적의 안티드론 기술개발 공간이 될 것”이라고 평가

○ 인도, 자마틀-무자헤딘-방글라데시*(JMT) 리더 검거

- 5.29 인도 경찰은 수티지역 카심나가르 마을에서 JMT 3대 수배자 중 한 명인 「보로 카림」을 테러 물자 및 은신처 제공 혐의로 검거

* 방글라데시내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방글라데시 및 인도 동부에서 활동

○ 필리핀, '테러방지법 강화' 긴급 추진

- 6.1 「두테르테」 필리핀 대통령은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 체포 및 14일 간의 구금을 허용하며, 테러단체에 가입한 자에게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을 긴급 추진한다고 발표

* 인권단체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

유럽

○ 터키, 테러 혐의 핀란드인 본국 추방

- 6.1 터키 정부는 “외국인 테러범 추방정책의 일환으로 테러 혐의가 있는 핀란드인 12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”고 발표했으며, 일부 유럽 국가의 ‘ISIS 가담자 본국 송환에 대한 반발’에도 “테러범 송환을 지속할 것”이라는 강경 입장 표명

* 터키 정부는 작년 말부터 750여 명의 ISIS 대원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

중 동

○ ISIS, 테러 촉구 음성 메시지 공개

- 5.29 ISIS는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“코로나19는 이 시대의 폭군과 추종자들에게 내리는 神의 징벌이다. 「알쿠라이시」는 최선을 다해 神의 敵을 공격하고 그들의 삶을 끔찍하게 만들라 했다”며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촉구하는 음성 메시지(40분 분량) 공개

아프리카

○ UN-수단, 대테러 양해각서 체결

- 5.28 수단 외교부는 “테러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를 교류하는 UN의 ‘Counter-Terrorist Travel Program’에 합류하기로 했으며, 「시디크」 수단 UN대사와 「보론코프」 UN 대테러 사무처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발표

英 런던브리지 차량·홍기 테러

- '17.6.3 22:06분경 영국 런던 시내 중심부 런던브리지와 버러마켓에서 차량과 홍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여 8명 사망·48명 부상
 - 테러범들은 승합차를 타고 인도의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고 교량 끝단 버러마켓으로 이동, 하차 후 군중들에게 무차별 홍기 공격
 - * 테러범들은 “알라를 위해”라고 외쳤으며,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원 사살
 - 同 지역은 식당과 술집이 밀집한 곳인 데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인 주말에 테러가 발생, 인명피해 가중
- 사건 직후 「테리사 메이」 영국 총리는 긴급 '안보회의'(코브라 회의)를 소집하고, 테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
 - * 대테러국과 경찰 권한 확대 및 테러행위 처벌 강화 등을 발표
- 同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으나, 정보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불순세력에 의한 모방테러로 평가

COBRA, Cabinet Office Briefing Rooms

테러 상식

< 英 코브라 회의 >

- (명칭) 英 안보회의(COBRA, Cabinet Office Briefing Rooms)
- (최초회의) '70년 광부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감독하기 위해 소집
- (소재지) 英 런던 화이트 홀 70(내각사무처 內)
- (목적) 영국 정부의 비상대책회의실을 의미(청와대 국가안보실·백악관 상황실 등과 유사)하며, 영국 총리나 총리비서관, 영국 외무장관 등이 특수부대, 전략 드론 운용 등의 비밀작전을 실시간 총지휘
 - * 同 기구는 총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
- (同 기구의 주요 국가 대테러 관련 회의)
 - '80년 駐영국 이란 대사관 테러(사망 6, 부상 3)
 - '09.7 런던 지하철·버스 겨냥한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00여명)
 - '15년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테러(사망 23명, 부상 500여명)